

곡성,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앞장

읍·면 간호직 배치...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지사협 강화...제도적 기반 확충

곡성군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물망 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장사업 관련 예산은 1,396억 원으로 전체 31.35%에 해당하며,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를 위한 인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달 11개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과거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던 읍·면 사무소에 복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 가까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들은 읍·면 복지팀에서 통합돌봄 안내장구 역할을 수행한다.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고위험 1인 가구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을 핵심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읍·면 단위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강과 연관된 복합적 욕구 해결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곡성군은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조지를 개편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부문 연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일자리 지원, 지역 자원 발굴, 각종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개관한 다림돌지원센터(다

함께 드림 돌봄공동체)는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복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읍·면에서는 공공서비스 원스톱 종합상담실 다림돌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 문제를 발굴해서 직접 해결까지 수행하는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의 삶을 보듬는 동시에 피부로 와 닿는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군 복지 정책의 목표다”며 “곡성군 다림돌 지원센터와 읍·면을 거점으로 우리 군에 특화된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문화관광 도시 도약 발판 마련”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군민 체감 사업 발굴

해남군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됐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말 설립등기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 문화관광분야의 핵심사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전문적인 정책을 수행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이병욱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2팀 5명으로 구성됐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관광마케팅 사업 종합 기획,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광상품 개발, 예술인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모

바일·개별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한 관광환경 조성, 생활·생태·음식관광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업무확대를 통해 정책 기획연구팀과 문화예술지원팀까지 4팀 20명까지 조직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개시와 관련해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출범식 대신 간소한 현판식을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신정부 시대 시작과 함께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것이 군 관광산업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활발한 문화관광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으로 해남군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들이 장성군 관내 마을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황룡강변 ‘빈센트의 오화원’ 조성 현장에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성군 제공

마을마다 거리마다 가을꽃 ‘활짝’

장성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 활동 눈길

장성군의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들이 시가지와 마을 곳곳을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어 주목된다.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달성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게릴라 정원인 인기를 끌자, 지난해 장성군은 지역 주민들을 조정 전문가로 길러내는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사업을 추진했다.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

한 46명의 주민들이 1년여의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들은 지금까지 정원 9곳을 조성했으며, 마을별로 추진 중인 ‘정경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수목 선정, 화초류 배치작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 2기 교육생들도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됐다. 황룡강 일원을

무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는 ‘빈센트의 오화원’ 조성이 한창이다. 다섯 가지 이야기를 간직한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추석을 맞아 황룡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시티 장성이 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시민정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완도, 별초 대행 서비스 완료

완도군은 추석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 멈춤 운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별초 대행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1,320기가 접수됐다.

지난해보다 신청량이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해 계획보다 5일을 앞당겨 지난 13일 별초를 완료했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군과 완도산림조합이 협약을 체결해 고향에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연고자가 없거나,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영광경찰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영광경찰서(서장 강기현)가 최근 전남도, 영광군, 전남경찰청, 영광경찰서 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험구간에 대해 노후·퇴색된 표지판을 교체하고 가드레일,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강기현 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3호 시책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군은 최근 민선 7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2022 시책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행복도시 담양 구현’ 시책 발굴

포스트코로나·기후변화·인구문제 등

담양군이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민선 7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2022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부서장은 대면으로 참석하고 읍면장과 전 직원 대상으로 영상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행정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시책과 군민이 체감하는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시책이 발굴됐다.

주요시책으로 ▲담양다움을 강화하는 ‘담양군 그린뉴딜’ ▲지역의 청사진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계획 수립 ▲디지털 활용 독거노인 안심환경 조성 ▲담양만의 연관 문화도시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담양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온라인 담양장터 모바일 앱 개발 ▲감염병 관리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통합관리시스템 ▲한국판 대나무뉴딜 추진 등이 논의됐다. /담양=정일남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제철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추석을 맞아 광양사랑상품권 82억여 원을 구매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포스코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이철호 행정부소장은 “이번 광양사랑상품권 구매가 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4월 포스코 창립 기념일을 맞아 78억여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했으며, 이번 상품권 구매로 지역에 창출될 경제적 효과는 160억여 원에 이른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담양 수북면 지사협, 빵 쿠폰 나눔 사업

담양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기태, 전채우)가 최근 ‘수북한빵’ 쿠폰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1인 5만 원 상당의 빵 쿠폰을 관내 초·중학생 15명에게 전달했다.

올해 지사협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받은

쿠폰은 관내 업체인 ‘코너베이커리’에서 올해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채우 위원장은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많은데 아동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다산베아채 대표 부부, 성금 기탁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장보성, 김유림 대표 부부가 자녀 장라엘 양의 돌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아동들이 365일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강진군에 365만 원을 기탁했다.

장보성 김유림 부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돌잔치를 하기보다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에 기탁을 결정했다”며 “지

역에 봉사하고 나누는 기업과 가족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진군 소재 아동시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8년 개장한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및 인재육성기금 기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